

SK, 석유제품 품질메니저 21명 배치

SK는 품질서비스센터에 석유제품 식별 등에 전문적 식견을 가진 품질메니저 21명을 두고 주유한 고객들이 석유제품에 이상을 느끼면 현장에 출동해 원인을 분석하고 귀책사유에 따라 보상 여부를 가려내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5월15일 발표했다.

석유제품 품질 신뢰를 높여 고객과 주유소가 석유제품 이상 유무 등으로 시비가 붙어 분쟁이 생기는 사례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는 주유소 품질관리 서비스 요원들이 전국 SK주유소를 대상으로 연간 1-2회 실시했던 품질점검 활동을 12회로 늘리기로 했다.

<화학저널 2007/05/15>